

# “혜택이냐, 차별이냐”...백신패스 도입 결정에 ‘혼란’

### 내달 일상회복 전환 앞두고 논란...헬스장 등 형평성 반발 靑청원 “기본권 침해” 폐지 주장...PCR 검사↑ 행정력 부담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백신패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중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들은 ‘미접종자를 차별하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 등의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전환에 앞서

‘백신패스’ 제도가 논란이 되자 백신패스는 최소한의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임을 재천명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질병청 자료에서 전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79.5%, 완료자 70.9%로, 광주는 1차 접종률 78.6%,

완료자 69.5%, 전남은 각 82.1%, 74.8%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면서 차별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률이 비교적 낮은 20-30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연령별 접종 완료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구 대비 접종률이 70-79세 92%, 60-69세 93%, 50-59세 92%, 40-49세 76%, 30-39세 71%, 18-29세 73%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에 비해 20-30대 젊은층에서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낮은 수치다.

이러자 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는 ‘아 백신패스~ 앞으로 헬스장 안간다’, ‘미접종자 왜 차별하냐’, ‘헬스장 1년치 등록했는데 매번 PCR검사 받아야 되냐’ 등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됐는데, 헬스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헬스장 회원들은 경제적 피해가 볼 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지역 한 헬스장 관계자는 “도대체 왜 헬스장이 고위험시설에 포함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놓고 먹고 마시는 식당과 카페는 시간제한도 없었지만, 이제 좀 풀리나 했더니 백신패스를 도입해서 기존 회원들까지

빠져 나가게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젊은층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등 백신패스 도입·결정에 대한 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비합리적이고 갑압적인 실내체육시설 등에 관한 백신패스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내용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맞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 ▲PCR 검사 증가로 인한 무의미한 행정력 보전인력 낭비 ▲식당·카페 등 코로나 확산은 생각하지 않고 일부 업종만 희생·강요하는 형

평성 문제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환불·연장 처리 문제 등이다.

미접종자는 실내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시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PCR 효력이 48시간 정도에 그쳐 사실상 이틀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방역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방역조치도 푸는 그런 최상의 길은 세계 어떤 나라도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오랜만에 즐기는 문화공연** 코로나19 방역체제로 연기됐던 노인의 날 기념 광주 북구지역 ‘제3회 경로 위인의 날’ 행사가 27일 운암동 중외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진행 관계자들과 함께 문화공연을 즐기고 있다. /김영근기자

## 농지 구입 기성용父,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농지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기씨 “축구센터 건립 용도 구매”

가까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욱(64·전 광주FC 단장)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는 전남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씨는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갖을 재배

할 예정’이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죽)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천277㎡를 아들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아들 명의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면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혐의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제했다.

기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또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사·목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11일 열린다.

한편 수사기관은 기성용의 농지 구입 관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동수기자

## 재직 당시 취득 정보 부동산 투기, 前 前의원 송치

### 토지·건물 등 되팔아 시세 차익...“일부는 여전히 보유중”

광주경찰이 기초의원 재직 시절 취득한 개발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화순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원 시절 취득한 개발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전직 화순군 의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4-2017년 의원 재직 시절 화순읍에 건설되는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주변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 일부는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고, 일부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를 구성한 광주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관련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 하는 등 수십 건의 사건을 내사 또는 수사한 경찰은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성과를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 ‘국도 77호선 개발’ 투기 목적 농지 부정 취득 18명 적발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국도 주변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목포경찰서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0)씨 등 1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농 의사가 없으면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취득해 국도 77호선(신안 압해-율도-달리도-해남 화원) 일대 농지 4만1천411㎡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도 77호선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개발이 가시화해 교각 공사가 이뤄졌고 목포 달리도·율도 일대 지가도 올랐

다.

A씨 등이 매입할 당시 3.3㎡당 3만-10만원이던 땅값은 40만원까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의 주민등록지나 실거주지가 서울·경기·광주 등이고 농지를 취득하면서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이행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동수기자

## ‘무면허에 음주까지’...완도해경, 50대 선장 적발

5t 이상 선박 해기사 면허 필수

완도해경정찰서는 26일 오전 11시30분께 완도군 화흥포 남쪽 약 1km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배를 운항한 9.77t 양식장관리선 A호 선장(50)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5분께 화흥포 남쪽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정을 현장으로 보냈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265%로 해상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

선장은 당일 오전 8시 자택에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시고 완도군 정도리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선장은 무면허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김동수기자

민노총 광주 집행부 2명 출석 요구

경찰이 지난 20일 총파업 대회를 강행한 전국민노총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집행부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총파업 당일 광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서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는 3천여명이 참가(주최 추산)해 다섯 차례의 해산명령을 묵살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인재영기자

#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 책임 A/S
-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 급매 전문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 돈되는 상가 ]**

- 나주시 용산동 가족놀이 테마공원(10만평) 입구 4차선 대로변 제1층 주거지역대지2,281㎡(690) 단층건물 937.52㎡(283.6) 매가:9억5,000 \*\*\*대형음식점,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 [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역 비주택 원룸 ]**
- 자연녹지 3,467㎡ 2층 건물 3층 톨60개
- 급매8억
- \*\*\*월1,000만원 수익 가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모텔·호텔(지역무관)
-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